



전북자치도, 4분기 '혁신 주인공'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4분기 '차량스러운 우리의 혁신 주인공'에 금융사회적경제와 임정우 주무관과 동물위생시험소 명근식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초저임과 주인공에 뽑힌 임정우 주무관은 전국 최초 전북테트라코성지구 지정을 이끌어 전북민의 금융 특화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마련했다. 범도민 금융교육 확대, 벤처창업 지원, 빅데이터 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금융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했다.

명근식 주무관은 1분기에 아깝게 선정이 무산됐던 '이팔청춘 주인공(나이와 상관없이 어떤 일이든 솔선수범하는 직원)' 부문 후보로 도 축산업 발전의 선봉장이다.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질병을 진단하고 현직적으로 농가를 관리해 전국 2위 규모인 전북 축산업 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으며, 결원으로 업무가 과중한 상황에서도 수의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화합에도 힘썼다. /이만호 기자

무풍의 역사·문화·생활상 조명

무주 무풍면지 출판기념회 성료

무주군 무풍면지 출판기념회가 지난 28일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오광석 의장 무풍면지 편찬위원회 김홍기 회장 무주문화원 맹갑상 원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풍습승지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및 감사장 수여, 떡 킷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윤정영 위원은 면지 편찬 경과 보고에서 7년간의 애로 및 어려웠던 과정과 출간인·주민들의 고증, 선진들의 생활상 등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김홍기 편찬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오랜 기다림 끝에 무풍의 역사·문화·생활상 등을 편찬하는 과정이 7년이나 걸렸으며 '위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한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축사에서 "면지는 지역의 가치를 조명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미래를 넘어 소중한 가치를 되찾아 낼 수 있도록 글자와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위원장 전북대 김규남 교수는 면지 내용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생활사, 부모님, 친구가 생각하는 사연 등 지난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며 "허스름함을 찾아 읽고 말씀 듣고,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기술하는 작업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무풍면지는 제1장 무풍의 역사, 제2장 일제강점기와 전쟁, 경험과 기억, 제3장 무풍의 문화와 역사, 제4장 무풍의 성씨와 인물, 제5장 무풍의 농경의례와 생활문화사 등 무풍의 민속 신앙 등이 일목연 하계 수록됐다.

제3부는 무풍의 오늘날로 무풍 8개 행정리와 마을 이야기가 788쪽으로 정리돼 이해를 도왔다.

이날 황인홍 군수 등 4명이 면지 편찬위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아 의미를 더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은희 신임 무주경찰서장 취임

무주경찰서(서장 김은희)는 29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제78대 김은희 무주경찰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은희 서장은 1983년 순경 공채로 입직해 영동경찰서 생활안정교동과장,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보호계장, 대전경찰청 생활안전부 112상황팀장 등을 역임했다.

김은희 서장은 "치안 책임자로서의 책임감과 동시에 동료 경찰관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환경이 조성돼야 시민에게도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적극적인 치안행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 신뢰받는 무주경찰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싶다고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하림, 익산 취약계층 위해 라면 3700상자 기탁

익산시에 이웃의 든든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나눔이 전달됐다.

(주)하림(사장 정호석)은 29일 익산시청을 찾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라면 3,700상자(1억7,0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라면은 지역 내 복지 기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공직생활 속에서 기록한 진안의 시간 공유

곽동원 군 농산촌미래국장, 미디어 토크 개최

지난 28일, 진안농업기술센터 강당에는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앞두고 진안을 영상으로 기록해 온 곽동원 농산촌미래국장과 함께하는 '미디어 토크'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92년 3월 공직에 입문해 2025년 12월 퇴임을 앞둔 곽 국장이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되돌아보는 자리로, 공직생활 중 진안을 영상으로 기록해 온 활동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퇴임식을 대신해 마련됐으며, 이날 동료 공직자와 가족, 지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미디어 토크에서는 진안홍삼 CF, 홍삼축제 기록 영상, 밥상 거북이 꼬들 등 진안의 일상과 자연을 담은 단편영화 신작 진안 고원물 이야기 시사회가 진행됐으며, 사진과 영상을 통해 제작 과정과 지역에 대한 애정이 담긴 이야기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상영회를 넘어 공직생활 속에서 기록된 진안의 시간과 마을, 풍경을 함께 공감하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의 시간을 나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정읍 지역 기업·단체, 이웃사랑 실천 '한마을'

연말을 맞아 정읍시에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29일 (유)이십일세기건설(대표 이복순)은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전달하며 기부 행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덕두영농조합법인(대표 김학구)도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훈훈함을 더했다.

또한 이날 정읍시환경연합(대표 김화경), 정읍로컬협동조합(이사장 김창민), 정읍로컬협동조합년회(대표 이동현) 등 3개 단체가 뜻을 모아 공동으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동충동 주민자치위, 동충동에 백미 기탁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는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되는 '희망2025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29일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노일환)가 백미 10kg 50포를 기탁, 성금품은 1월 17구 가정방문을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게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26회 전북장애인복지증진대회·송년문화공연 성료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가 주최하고 전북장애인문화예술통합센터가 주관하는 제26회 전북장애인복지증진대회 및 송년문화공연이 지난 27일 전주교육대학교 화합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이병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과 최주만 부의장, 이남숙·이국 전주시의회 의원, 김양욱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장과 황금석 한국문화예술통합복지사업, 김시우 행복드림복지회원회장 등 내빈들과 장애인 및 가족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식, 표창 수여식 축사, 성명서 낭독, 장애인들 기물품전달식, 송년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표창 수여 및 복지대상 시상식에서 김선례 행복드림복지회 회장이 복지대상을 수상받았다.

김연경 소풍문화예술통합재단장과 김주연 전 전주시의회 의원이 복지공로상을 받았다.

가수 박부철씨, 김성곤 이미용봉사단장 가수 정순임씨는 각각 도지사, 도의회의 의장, 교육감 표창을 수여받았다.

문태삼씨, 이호기씨, 이수정씨는 각각 정동영 국회의원,



김윤덕 국회의원, 이성은 국회의원 표창을 수여받았다.

김선례 행복드림복지회장이 전주시장 표창을, 가수 이규씨는 전주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황선길씨는 전북사회복지협의회 표창을, 진석씨는 전북지역봉사센터 이사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과 김양욱 소장 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재훈 기자



'Wot-sarang', 남원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남원시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관내 옷칠 목공예 동호회 'Wot-sarang' (회장 이정두)이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Wot-sarang' 동호회는 옷칠 목공예 동호회로, 2024년에는 회원들이 직접 만든 옷칠 목공예품 판매수익 111만원을 이웃돕기성금으로 전달하는 등 온정을 나누는 데 앞장서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중부교회 등 남원 죽향동에 이웃사랑 실천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는 중부교회가 성금 300만 원을, 명인치과가 250만 원을 기부하며, 반합 없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남원시에 방한키트 80박스 기탁

남원시는 최근, 전북은행이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한 겨울나기 방한키트 80박스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방한키트에는 담요, 귀마개, 온열반석 등 6종의 방한용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내 취약계층 가정에 배부돼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재성, 남원시에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기탁

남원시는 최근, (주)재성(대표 안광섭)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성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재성은 1992년 창립된 기능성 접착제 전문 제조업체로, 2011년 경기도에서 남원시로 본사를 이전한 이후 최신희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대표 기업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육성의료재단,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기탁

김제시는 의료법인 육성의료재단(대표 이진화)이 지난 24일 지역 내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육성의료재단 산하 골든카운티 요양병원 직원 약 20여 명도 뜻을 모아 김제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양수발전소, 형설지공도서관에 도서 기증

한국수력원자력(주)무주양수발전소가 29일 무주형설지공도서관에 도서 537권(1천만 원 상당)을 기증해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에 기증된 도서는 무주형설지공도서관과 지역 내 9곳(무주읍, 설천면, 적상면)의 작은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설천면발전회, 설천면에 온열찜질기 125개 기탁

무주군 설천면발전회가 29일 설천면행정복지센터에 540만 원 상당의 온열찜질기 125개를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무주군 설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날 기증받은 온열 찜질기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인사

전북소방본부
 ◇소방령 전보 ▲119대응과장 김승현 ▲소방감찰과장 김주일 ▲119 특수대응단장 김갑수 ▲남원소방서장 남철희 ▲무주소방서장 임정욱 ▲고창소방서장 이경승